

남이 못하는 것 만들어내는 성취감에 매력

새로운 것 개발하는 자세로 협회위상 재정립

임 흥 택 / 한국포장기계협회 회장

한 국포장기계협회가 공식출범 2주년을 맞아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는 등 면모를 일신했다. 협회는 제2기 집행부를 이끌어갈 신임회장에 임흥택 조운기계 사장을 선출하고 사업방향 및 업무전반을 일임했다.

“기술자는 모래알같은 특성을 갖고 있어 자기기술만 내세우는 한국적인 독특한 사고방식이 포장기계업계에도 퍼져 있습니다.”

임흥택 회장은 우리나라 포장업계의 특성을 이렇게 진단하고 앞으로 전임 임원진들의 운영을 이어받아 협회의 위상정립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한국포장기계협회가 처음 발족된 것은 동종업체가 무엇을 생산하고 주력제품이 무엇가를 파악하여 양질의 제품을 만들어 국내 포장기계의 수준을 높이기 위함이었다.

기계업체들이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도 다품종 소량생산을 하기 때문으로 전문성을 높여 대량생산체제를 갖춰 국내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수출에 주력하면 외국도 우리기계의 시장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협회를 구성하게 된 것이다.

그동안 수석부회장으로 협회 운영에 참여해 왔지만 협회를 이끌어 가는 책임자로서 어깨가 무거워진 임 회장은 전임 회장단의 운영을 연장시켜 내실을 다지기 위해 다각적인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임 회장은 회원사들의 종합카탈로그 제작, 전시사업 추진, 회원사 확대를 97년도 주요 사업으로 잡고 있다.

특히 회원사 확대를 위해 전포장기계 제조 업체는 물론 부품업체도 포용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일부 부품업체가 회원사로 이미 가입돼 있어 회원사 확대는 무리없이 진행될 것이며, 전시사업의 경우 국내 포장관련 전시회에 공동 참여하는 문제를 검토, 추진하고 있는데 97년 서울팩부터는 협회관을 운영한다는 방침도 세워놓고 있다.

종합카탈로그는 협회와 회원사들의 제품을 국내외에 알리는데 적절하도록 편집할 예정인데 전문인의 자문과 자료수집이 이루어지고 있다.

어쩌면 임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가 가장 중요한 시기를 보내야 하는지도 모른다. 협회의 토대가 확고해지느냐 정체를 하느냐의 기로에 서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임 회장의 노력과 추진력에 견주어 볼 때 협회의 위상정립이 새롭고 굳건히 될 전망이다.

그는 지난 62년 한양공대 기계과를 졸업하고 무엇인가 만들어 보고 싶어 소마력을 이용한 자동기계 제조업체에 취업했다.

그러다 71년 포장기계 전문회사인 조운기계를 창업함으로써 본격적인 충전포장기 장이가 된다.

“국산화가 안된 기계를 개발하고 자동화시켜 비용을 절감하는데 매력을 느꼈습니다. 크게 성공하지는 못했어도 그동안 개발한 기계들을 보면 보람을 느낀다”는 임 회장은 “평생을 바쳐온 직업에 대한 회의는 느끼지 않는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로터리식 파우더충전기를 처음으로 국산화한 이래 의약품 정제인쇄기계, 항생제 캡슐충전기, 라면스프 포장기계 등 식품포장용 충전기의 국산화에 큰 공헌을 하고 있다.

“한가지 한가지 만들며 공부하는 것도 재미가 있지만 고품질의 기계를 저가에 보급하고 작업인원을 줄여 생산성 향상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면 기쁘다”는 그는 우수한 기술력을 갖고 있어도 자금문제에 부딪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가 많아 관련기관에서 담보보다는 기술과 신용을 바탕으로 지원하는 제도가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자유경쟁체제가 되면 무엇보다도 근로자들의 의식수준부터 높아져야 한다”는 그는 “인건비가 비싼만큼의 효율적인 근로가 되지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로 업무시작시간이 9시임에도 9시까지 출근해 시간을 소비하고 6시 퇴근이면 30분전부터 퇴근준비하는 풍토가 없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업무에 대한 시간개념이 희박해 소비하는 시간만큼 외국에 뒤질 수밖에 없다는 계산이다.

“작은 일을 하더라도 목표를 갖고 효율적으로 행하면 짧은 시간에도 많은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것처럼 항상 목표를 갖고 임하다 보면 실패와 좌절도 적다”는 임 회장은 “신제품 개발에 역점을 두는 것은 물론 협회도 새로운 것을 개척한다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

오선진기자